연중 제13주일 강론(2019년 6월 30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졸업한 후에, 매 5년 마다 동창들이 다 모이는 Home Coming Day가 열리는데, 첫 5년째 동창회에는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다 참석한다고 합니다. 다들 최고로 좋은 옷, 세련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잘 나가는 졸업 5년차 젊은이들이 부부 동반으로 함께 참석해서 무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해서 자기 자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차 동창회가 되면 참석하는 졸업생들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10년 차가 되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졸업생은 두 번 이혼 후에 세번 째 결혼을 준비 중이고, 어떤 졸업생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부부 동반 동창회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던 일이 어려운 동창들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는 동창들도 생기는 거죠.

 동창회는 30년차가 되는 해에도 열리는데, 그때는 정말 소수만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때 쯤이면 동창 가운데 이미 많은 수가 추락해 있다는 겁니다. 금융 사기로 감옥에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서 빈털털이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계속 실패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등등…

 처음 졸업을 한 후에는 꿈 많고 능력 좋은 청년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변하게 됩니다. 졸업 30년 차가 되어서 훌륭한 인생을 산 졸업생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약 10퍼센트 밖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90퍼센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부와 지위, 성공만을 쫓고 살다 보면 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의 매력적이고 자유 분방한 모습에 홀딱 빠진 사람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당시 답답하고 절망적인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따라 다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은 전에 본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는 굉장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 통념과 고정 관념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 개인적인 일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주일에 성당 올 때만 신자이고, 주일에 성당 올 때만 하느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중에는 신자도 아니고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도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일에만 신자’입니다.

 그리니까 하느님은 주일에 성당에만 계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걸까요?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지 바쁩니다. 하루 종일 뭔가 하면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도 무지 빨리 지나갑니다. 별도 한 일도 없는데, 한 달 금방 지나고, 일 년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삶에 그다지 느낌도 별로 없고, 신앙 생활의 뜨거운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 가장 소홀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인생 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인데, 그 관계를 소홀이 여기게 되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대충하고 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이고, 성당에 자주 나와야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신앙심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성당에 잘 안나 오고 기도도 잘 안하니까 신앙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한 번도 안하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대화도 소홀해지고, 관심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도 차츰 멀어지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별로 없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친밀한 관계 형성도 어려워집니다.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삽니다. 가만 보면 대부분 쓸데 없는 것들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몇가지나 된다고요? 오만 가지나 됩니다.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열 몇가지도 아니고,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일 걱정, 등등.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뭘 먹지? 등등 아침에 눈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머릿속은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걱정의 대부분이 그냥 쓸데없는 상상에 의한 겁니다.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애태우고 근심하는 것이죠. 병에 걸릴까 걱정하고, 사업 잘 안될까 걱정하고, 자식들 뭔 문제 생길까 걱정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힘들어 하고,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사니까 사는데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뒷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 다 기억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나 한테 상처주고 아픔을 준 사람은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괜히 한 숨 팍팍 쉬고 잠도 안자고 괴로워합니다.

 건망증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지난 일들 다 기억하고 살다가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대충 덮어 두고 살아야지, 다 들춰서 파다 보면 상처가 절대 아물지 못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죠?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면 뭐합니까? 성당 문 열고 나가면 싹 다 잊어버리고, 도로아미 타불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잘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살지 말고 하느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삶이 평화롭고 편안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이 치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또 말씀하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합시다!!